메시지 2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

성경: 마 9:10–13, 15, 계 19:7–9

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종교와 대립되시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 종교 밖에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A.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를 발견함, 그리스도를 천거함, 그리스도를 따름 등은 모두 종교 밖에 있었다 — 마 1:18–23, 2:1–12, 3:1–12, 4:12–22.

B. 종교 안에서 무언가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려는 생각은 모두 마귀의 유혹이다 — 마 4:5–7.

C.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종교와 대립되신다 — 마 9:12, 15.

D. 주 예수님은 종교적인 전통을 주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적인 실재를 주의하신다 — 마 15:1–20.

Ⅱ.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A. 예수님은 왕국을 위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B.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C.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려는 것이었다.

D.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 마 9:13.

1.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 곧 죄의 병을 치료하신다.
2. 죄와 죽음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병과 질병과 질환이 있다.
3.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각 방면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4. 죄인들인 우리는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자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
5.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치료하신다.
6.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의 각 부분은 항상 치료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7. 우리의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는 주로 신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E. 바울이 후기 사역에서 가진 체험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인식하도록 도움을 준다.

1.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 두었습니다."라고 말한다.
2.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병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를 병든 상태로 두었다.
3. 바울은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행 19:11–12) 디모데의 위장병을 고쳐 주지 않고 오히려 자연치료법으로 고치라고 했다(딤전 5:23).
4.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고,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
5.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보았다.

6.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돌본 이유는 고난의 시기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내적인 생명의 훈련 아래 있었을 뿐,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전자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한 것이고, 후자는 능력 곧 기적적인 능력 안에 있는 은사에 속한 것이다.
8. 바울의 체험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치료가 대부분 영과 혼을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다.
9.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F.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권위를 갖고 계신다.
1. 그분의 치료는 단지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위의 문제이다.
2.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를 직접 만지실 필요가 없다.
3. 그분은 단지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와서 우리를 치료한다 — 마 8:8.
4. 우리의 의사이신 분은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치료하신다.

Ⅲ.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계시되신다 — 마 9:15, 계 19:7-9.

A. 마태복음 25장 1절은 신랑이신 주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더 전진된 말씀이다.
1. 이 절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곧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분으로서 다시 오실 것임을 계시한다.
2.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체현되신 하나님으로서 신부를 얻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랑의 신분이다.
4. 신랑이신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시다.
5. 우리는 생명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생생한 누림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겨야 한다.

B.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준다.
1. 이 절들은 주 예수님께서 어린양으로서 신랑이심을 계시한다.
2. 그리스도는 어린양과 신랑 모두로 제시되신다.
3.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러 오신 어린양으로 계시되실 뿐 아니라,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시는 신랑으로 계시되신다.
4. 어린양은 구속을 위해 있고, 신랑은 결혼을 위해 있다.
5. 구속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결혼은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취하실 때 있을 것이다.
6.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결혼식을 하셔야 한다. 우리의 위치는 신부의 위치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위치는 신랑의 위치이다.
7. 우리는 그분을 만날 신부가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그분은 셋째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날 신랑으로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8. 그분은 신랑으로서 오고 계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가고 있다 — 마 25:1.

© 2025 Living Stream Ministry